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이 현 진*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규칙을 위반한 상황에서 마음의 구성요소인 바람과 의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정서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인습적 판단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세, 6세, 8세 아동 45명과 대학생 15명에게 의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바람이 충족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조합된 4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주인공의 정서를 예측하게 하였고,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인습적 판단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정서를,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의도의 영향도 있어서, 바람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예측하였고, 바람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예측하였다. 인습적 판단에서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여기에도 의도가 영향을 미쳤다. 의도를 가지고 위반한 경우에는 의도 없이 위반한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고,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추론이나 인습적 판단에 바람, 의도, 규칙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 마음이론, 인습적 판단

마음이론(theory of mind)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행동을 내적인 마음 상태에 기반하여 이해한다고 가정한다. 의도(intention), 바람(desire), 믿음(belief) 등은 이러한 내적인 마음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 바람이나 의도는 비교적 일찍 습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이현진, E-mail: hjlee@ynu.ac.kr

* 실험에 참여해 준 경산 아가페 몬테소리 어린이집과 경산 중앙초등학교 아동들, 그리고 자료 수집을 도와 준 전숙영, 권은영에게도 감사사를 드린다.

Astington과 Gopnik(1991)은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바람이 마음 상태이고, 바람이 행위와 같지 않고, 바람과 행위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람 때 그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된다. 사과를 먹고 싶을 때 사과가 있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어린 아동들도 바람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llman과 Woolley(1990)은 2세 아동들도 바람과 관련하여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바람과 그 바람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행위를 예측하는 것과 다르다.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지만,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은 바람과 정서적 결과 사이를 이해하는 것이 3세경 (Lagattuta, 2005; Wellman & Lagattuta, 2000), 심지어는 2세 경부터(Wellman & Woolley, 1990)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표상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을 표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람의 이해보다 다소 늦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의 이러한 속성 중 바람과 정서적 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룰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마음이론 틀 안에서 바람과 정서적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사회적 삶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상황은 단순히 바람의 충족 여부만으로 정서 경험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할 때 아동의 바람은 엄마가 제시하는 금지 규칙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보통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인 정서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바람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이해와 정서 반응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도덕 규칙을 위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에 대한 정서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Arsenio와 Kramer(1992)는 4, 6, 8세 아동들에게 주인공이 다른 아동의 사탕을 훔치거나 다른 아동을 그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느낄지를 예측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4세와 6세 아동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주인공이 행복하게 느낄 것이라 대답하였다. 반면에 8세 아동들은 나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린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이 보고하였다. 도덕적 위반 행동을 한 주인공의 정서를 예측할 때 나타난 발달적 변환은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 (Arsenio, 1988; Núñez & Harris, 1998; Peterson & Siegal, 2002). 대부분의 연구들은 7세보다 어린 아동들은 주인공이 원하던 것을 얻었으면 도덕적인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긍정적 정서를 가질 것을 예측하였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다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어린 아동들은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결과만을 고려하여 정서를 예측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서를 고려하고 이러한 정서를 통합하여 예측하게 되기에 정서 예측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Lagattuta(2005)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금지 규칙(예, 찻길에서 공놀이를 하면 안 된다)과 바람(예, 찻길에서 공놀이를 하고 싶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떠한 정서를 예측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도덕적 위반 행동대신 안전이나 건강을 염려하여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을 사용하였다. 금지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연령(4세, 5세, 7세, 성인)의 피험자들이 바람이 충족되면 기분이 좋다는 긍정적 정서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바람과 규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4-5세 아동들은 대부분 규칙을 위반하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으면 긍정적 정서를, 규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였다. 어린 아동들의 이러한 수행패턴은 7세 아동들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다른 선행 연구에서처럼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보여 준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도덕적 위반 상황이나 금지 규칙 위반 상황에서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이다. 하지만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지 규칙만이 아닐 것이다. 금지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바람을 충족시켰다면, 의도 없이 바람이 충족된 경우와는 정서적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의도는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나는 마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Carpenter, Akhtar, & Tomasello, 1996; Meltzoff, 1995). 초기의 마음이론 연구에서는 의도가 바람과 개념적으로 구별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의도와 바람을 구별하는 여러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Bratman, 1987; Malle & Knobe, 2001; Schult, 2002; Searle, 1983; Wellman, 1990). Searle(1983)에 따르면, 의도와 바람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 두 개념 모두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될 수 없고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이 두 개념 모두 변화를 가져오도록 행동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내가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싶고, 샌드위치를 먹

으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 바람과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는 샌드위치 가게로 갈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 의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바람은 다른 더 큰 바람이 있을 때 행위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있으면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Bratman, 1987; Malle & Knobe, 2001).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고 싶은 바람보다 바닷가에 가고 싶은 바람이 더 크다면 바닷가에 가려는 의도를 함으로써 바닷가에 갈 것이다. Schult(2002)는 바람과 의도가 구별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바람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5세 이후의 아동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개념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Wellman(1990)은 바람과 의도의 차이에 주목하며, 의도가 바람과 행위를 중재해 주는 마음이론 모델을 만들었다. 믿음-바람 심리학으로 불리는 Wellman의 모델에서 바람-의도-행위를 연결하는 부분은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에서 의도는 바람을 행위와 연결해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도 바람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바람은 의도에 불을 지피고, 의도는 바람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Wellman(1990)이 제안했듯이 의도가 바람과 행위를 중재해 준다면, 바람과 정서적 결과 사이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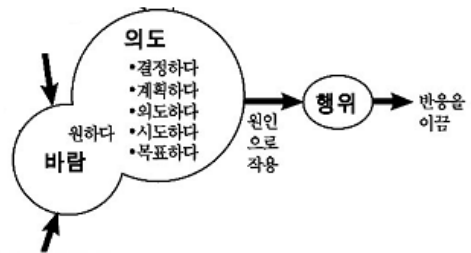


그림 1. 바람-의도-행위에 대한 모델

의도가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의도는 바람을 실현시키기도 하지만 바람의 실현을 보류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화는 영화를 보고 싶지만 친구가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할 때, 자신의 바람을 보류하고 친구의 바람대로 콘서트에 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자신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 금지 규칙이 있을 때 정서적 결과가 달라지듯이,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에도 정서 경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의도가 개입된 상황에서 바람과 정서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의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본 연구들은 별로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칙이 주어질 때 바람과 의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정서 경험을 이끄는지, 더 나아가 발달적 변환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주제는 인습적 판단에서 바람과 의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Piaget는 어린 아동들이 도덕 추론을 할 때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행위의 결과만을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도덕이나 인습 판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을 반대하며 3-4세 아동들도 행위를 판단할 때 의도를 고려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김시은, 정영숙, 2000; Costanzo, Coi, Grumet, & Farnill, 1973; Nelson, 1980). 더 나아가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의무 추론(deontic reasoning)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Núñez & Harris, 1998). 본 연구에서는 규칙 위반이 바람을 충족시키지만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때에는 바람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며, 인습적 판단에 바람과 의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실험 대상

실험은 G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아동 15명(연령 범위: 4년7개월-5년4개월: 평균=5년0개월), 6세 아동 15명(연령 범위: 6년0개월-6년7개월: 평균=6년5개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8세 아동 15명(연령 범위: 7년9개월-8년8개월: 평균=8년5개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명(연령범위: 18세-22세: 평균=20세)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과제 및 절차

실험에는 주인공의 의도가 있는지와 바람이 충족되는지 (또는 엄마가 말한 금지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4종류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4종류의 이야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의 바람이 충족되는 조건에서는 엄마의 금지 규칙을 위반하게 되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금지 규칙을 따르는 상황을 포함하였다. 둘째, 금지하는 조건에서는 Lagattuta(2005)의 제안을 따라,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규칙을 사용하였다: 1) 안전과 관련된 규칙(예,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2) 건강과 관련된 규칙(예, 자기 전에 사탕을 먹지 마라) 3) 개인 소유에 관련된 규칙(예, 아빠 컴퓨터를 쓰지 마라).

실험은 어린이집의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아동과 대면하며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또는 그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인습적 판단을 하게 하였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노트북으로 각 이야기에 상응하는 그림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

와주었다. 이야기를 들려 준 후,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바람, 의도, 엄마의 허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난 후, 주인공의 정서 상태를 추론하게 하였다. 정서를 추론할 때 <그림 2>와 같은 세 종류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며, ‘좋았을지’, ‘그저 그랬을지’, ‘나빴을지’ 중 한 가지로 대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추론한 이유를 물었다. 인습적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일지’, ‘아닐지’를 대답하게 하고, 그런 대답을 한 이유를 물었다. 각 조건에 대한 이야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I.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고 바람이 충족된 조건 (규칙을 위반함)

이 조건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엄마 말을 위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승현이는 찾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 엄마는 찾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승현이는 찾길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했어. 결국, 승현이는 찾길에서 자전거를 탔어.”

II.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조건 (규칙을 위반하지 않음)

이 조건에서는 주인공이 엄마 말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반을 하지 않게



그림 2. 정서 추론에 사용된 얼굴표정

되어, 그 결과 자신의 바람은 충족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일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어.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남일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아이스크림 통을 빼앗아 갔어. 결국, 남일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어.”

III.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고 바람이 충족된 조건 (규칙을 위반함)

이 조건에서는 주인공이 엄마 말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위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바람이 충족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준석이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고 싶었어. 엄마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준석이는 나무 밑에 앉아 있으려고 했어. 그런데, 친구들이 준석을 나무 위로 밀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어. 결국, 준석이는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어.”

IV.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조건 (규칙 위반하지 않음)

이 조건에서는 주인공이 엄마 말을 위반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위반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희정이는 언니 신발을 신고 싶었어. 엄마는 언니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어. 희정이는 자기 신발을 신으려고 했어. 결국, 희정이는 자기 신발을 신었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각 조건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정서 질문: “OO이 기분은 어땠을까?
좋았을까, 그저 그랬을까, 나빴을까?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인습 질문: OO이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점수화

정서 질문과 인습 질문에 대해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고, 각 질문에서 반응과 설명에 대한 점수를 구별하여 부여하였다.

반응에 대한 점수화

정서 반응과 인습적 판단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서 반응에 대한 점수화. 정서 반응에 대한 추론은 ‘기분이 좋다’, ‘그저 그렇다’, ‘기분이 나쁘다’로 측정하였고, ‘기분이 좋았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1점, ‘나쁘다’에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조건에서 3종류의 이야기를 사용하였기에, 정서 질문에 대한 총점은 6점이었다.

인습적 판단에 대한 점수화. 인습적 판단의 경우에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측정하였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라는 반응에 1점, ‘그렇지 않다’는 반응에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조건에서 3종류의 이야기를 사용하였기에, 인습 질문에 대한 총점은 3점이었다.

설명에 대한 점수화.

이유에 대한 설명을 4가지 범주로 구별하고, 해

당 범주에 1점을 부여하였다. 4가지 설명 범주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바람, 의도, 및 규칙이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된 범주로 심리적, 그리고 인습적 설명 범주를 포함하였다. 아동의 경우, 원인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술한 경우가 많았기에 결과적 설명을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 세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설명: 바람, 의도, 생각, 감정 등 심리적 요인을 언급하며 설명한 경우를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예)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타서요.

인습적 설명: 엄마가 말한 금지 규칙을 언급하며 설명한 경우를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예) 엄마가 차길에서 타지 말라고 했는데 타서요.

결과적 설명: 결과만을 언급하며 설명한 경우를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예) 차길에서 자전거를 타서요.

기타: 심리적 내용과 인습적 내용을 다 언급하며 설명한 경우(예, 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엄마가 타지 말라고 해서 안타서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대답을 안 한 경우, 또한 위의 세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답을 한 경우를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피험자의 설명을 전사한 후,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이 전사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설명을 위의 4범주로 분류하였다. 설명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류자들이 토의를 한 후 합의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류자들 간의 일치도는 98.5%이었다.

결 과

반응 분석

수행 분석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서 반응 예측과 인습적 판단에 대한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삼고 각각에 대한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속 변인들의 개념적 관련성을 가정하지 않았기에, 각 종속 변인에 대한 4(연령: 5세, 6세, 8세, 성인) x 2(의도: 유, 무) x 2(바람: 충족 대 비충족)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집단 간 변인, 다른 두 변인은 집단 내 변인인 혼합 설계를 사용하였다.

정서 반응

정서 반응 예측에 대해 개별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0-6점 사이였다. 점수가 6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정서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정서로 해석될 수 있다. 정서 반응 예측 결과

표 1. 정서 반응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4.27	1.20	3.93	2.73
	SD	2.15	1.47	2.02	1.75
6세	M	5.73	0.07	4.93	2.33
	SD	0.59	0.26	1.28	1.68
8세	M	5.47	0.07	4.73	2.67
	SD	0.83	0.26	1.28	1.84
대학생	M	4.53	0.47	3.80	3.47
	SD	1.30	0.74	1.52	1.41
전체	M	5.00	0.45	4.35	2.80
	SD	1.46	0.95	1.59	1.69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결과는 바람이 충족된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충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예측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변량분석 결과, 의도에 대한 주효과 ($F(1, 56)=39.99, p<.001$), 바람에 대한 주효과($F(1, 56)=179.33, p<.001$)가 유의미하였고,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바람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3, 56)=5.15, p<.001$)와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F(1, 36)=99.17, p<.001$)가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의도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와 의도, 바람,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바람과 의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시사해 준다(그림3 참조). 첫째, 바람이 충족된 경우(규칙을 위반함)에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예측하였는데, 의도가 없을 때($M=4.35$)보다 의도가 있을 때($M=5.00$)에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예측하였다, $t(59)=3.35, p<.001$. 둘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규칙을 위반하지 않음)에는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예측하였는데, 의도가 없을 때($M=2.80$)보다 의도가 있을 때($M=0.95$)에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t(59)=-11.07, p<.001$. 이 결과에서 의도의 개입은 긍정적 정서 경험과 부정적 정서 경험과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함을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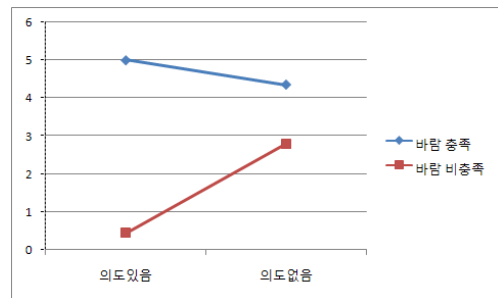


그림 3. 정서 반응에서 바람과 의도의 상호작용효과

수 있었다. 특히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의도의 개입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예측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정서 경험에서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인습적 판단

인습적 판단에서 개별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3점이었다. 점수가 3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인습적 판단을 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인습적 판단 분석에서는 바람의 충족 여부가 규칙의 위반 여부와 관련되므로, 바람 변인을 규칙 변인으로 바꾸어 진술하도록 한다. 인습적 판단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의도에 대한 주효과 ($F(1, 56)=178.01, p<.001$), 규칙에 대한 주효과($F(1, 56)=96.32, p<.001$)가 유의미하였고,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의도와 연령의 상호

작용 효과($F(3, 56)=4.38, p<.01$), 의도와 규칙의 상호작용 효과($F(1, 36)=37.60, p<.001$)가 유의미 하였다. 반면에, 규칙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와 의도, 바람,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 준다(그림 4 참조). 첫째, 의도 없이 위반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판단을, 의도를 가지고 위반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단을 하였다. 둘째,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의도 없이 위반하지 않은 경우($M=2.75$)가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경우($M=0.78$)보다 긍정적 판단을 더 많이 보였다, $t(59)=-13.43, p<.01$. 셋째,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위반한 경우($M=0.13$)가 의도 없이 위반한 경우($M=1.12$)보다 부정적 판단을 더 많이 보였다, $t(59)=-7.04, p<.01$. 넷째,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반하지 않은 경우($M=0.78$)와 의도가 없었지만 위반하게 된 경우($M=1.12$)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반응 예측과 인습 판단에서 연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서 반응에 대한 예측은 바람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정서를,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 정

표 2. 인습적 판단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0.27	0.93	0.67	2.20
	SD	0.80	1.10	1.11	1.15
6세	M	0.07	1.00	1.07	2.93
	SD	0.26	1.13	1.03	0.26
8세	M	0.00	0.73	1.20	2.93
	SD	0.00	1.16	1.01	0.26
대학생	M	0.20	0.47	1.53	2.93
	SD	0.56	0.83	1.24	0.26
전체	M	0.13	0.78	1.12	2.75
	SD	0.50	1.06	1.12	0.68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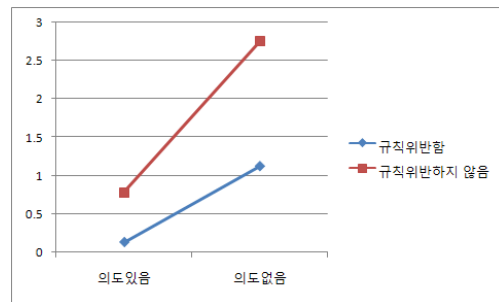


그림 4. 인습적 판단에서 의도와 규칙의 상호작용 효과

서를 예측하였다. 정서 예측과 관련하여 규칙의 위반 여부보다는 바람의 충족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서 반응은 의도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의도가 있으면서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긍정적 정서가 더 많이 예측된 반면에 의도가 있었지만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예측되었다. 넷째, 인습 판단은 규칙 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행동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위반한 행동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인습 판단에도 의도가 영향을 주었는데,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도가 있을 때 더욱 더 부정적으로 판단한 반면에,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가 없을 때 더욱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명 분석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심리적 설명, 인습적 설명,

표 3. 심리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0.20	0.07	0.13	0.07
	SD	0.56	0.26	0.35	0.26
6세	M	0.67	0.80	0.80	0.80
	SD	1.18	1.01	1.01	1.15
8세	M	1.27	2.13	1.73	1.20
	SD	1.28	0.92	1.10	1.08
대학생	M	1.73	2.00	1.20	0.87
	SD	0.96	0.76	0.86	0.74
전체	M	0.97	1.25	0.97	0.73
	SD	1.16	1.16	1.04	0.95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결과적 설명, 기타의 4개의 범주로 구별하였다. 이 범주 중 심리적 설명, 인습적 설명, 결과적 설명의 3범주에 대한 평균치를 분석하였다. 각 설명 범주에 대한 분석에서는 평균치 차이에 대해, 4(연령: 5세, 6세, 8세, 성인) x 2(의도: 유, 무) x 2(바람: 충족 대 비충족)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집단 간 변인, 다른 두 변인은 집단 내 변인인 혼합 설계를 사용하였다.

정서 반응에 대한 설명

정서 반응에 대한 심리적 설명

정서 반응에 대한 심리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설명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연령에 대한 주효과 ($F(3, 56)=16.64, p<.001$), 의도에 대한 주효과 ($F(1, 56)=9.37, p<.01$)가 유의미하였고, 바람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의도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F(3, 56)=5.70, p<.01$),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 ($F(1, 56)=9.98, p<.01$), 의도와 바람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F(3, 56)=3.97, p<.05$)가 유의미 하였다. 바람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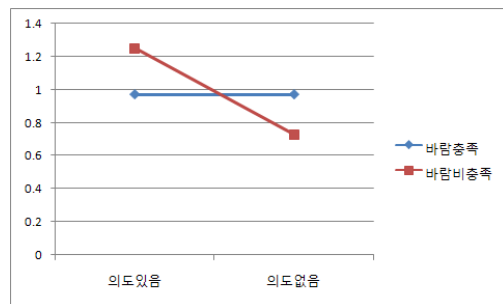


그림 5. 심리적 설명에서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

령 효과에 대한 Tukey 검증 실시 결과, 5세와 6세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p<.05$), 6세와 8세 사이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는 6세 이후에 심리적 설명이 증가함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의도와 바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그림 5 참조).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의도 유무에 관계 없이 비슷한 정도로 심리적 설명을 하였으나,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가 없었을 때 ($M=0.73$)보다 의도가 있었을 때($M=1.25$) 심리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다, $t(59)=3.65, p<.001$.

정서 반응에 대한 인습적 설명

인습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정서 반응에 대한 인습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인습적 설명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의도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56)=9.51, p<.01$,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하였다, $F(1, 56)=7.42, p<.01$.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었을 때($M=0.1$)보다 의도가 없었을 때($M=0.48$) 인습적 설명이 더 많았다, $t(59)=-3.51, p<.001$.

정서 반응에 대한 결과적 설명

결과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적 설명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연령에 대한 주효과($F(3, 56)=8.18, p<.001$)와 의도에 대한 주효과 ($F(1, 56)=13.42, p<.001$)가 유의미 하였다. 연령 효과에 대한 Tukey 검증 결과 5, 6세 아동과 8세, 성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동들(5-6세)은 결과적 설명을 많이 하고 이러한

표4. 인습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0.13	0.07	0.27	0.33
	SD	0.35	0.26	0.46	0.82
6세	M	0.27	0.13	0.27	0.33
	SD	0.59	0.35	0.59	0.62
8세	M	0.20	0.00	0.13	0.53
	SD	0.41	0.00	0.35	0.99
대학생	M	0.20	0.20	0.27	0.73
	SD	0.56	0.41	0.46	0.70
전체	M	0.20	0.10	0.23	0.48
	SD	0.48	0.30	0.47	0.79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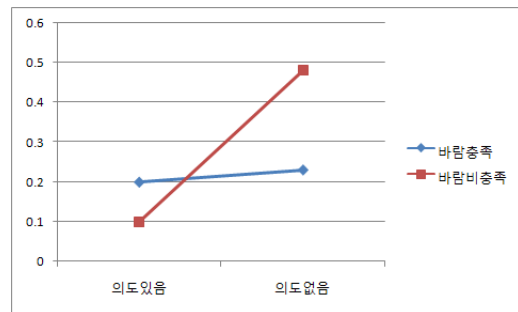


그림 6. 인습적 설명에서 바람과 의도의 상호작용효과

경향이 8세 이후에 감소함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정서 반응에 대한 설명에서 발달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8세 이전의 아동들에게는 결과적 설명이 많이 나타났지만, 6세 이후가 되면 심리적 설명이 증가하였다. 설명에서도 의도가 영향을 주었는데, 의도가 개입되었을 때 심리적, 또는 인습적 설명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습 판단에 대한 설명

인습 판단에 대한 심리적 설명

표5. 결과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1.73	1.67	1.53	1.27
	SD	1.34	1.11	1.30	1.16
6세	M	1.73	1.87	1.60	1.07
	SD	1.39	1.13	1.06	1.39
8세	M	0.80	0.87	0.40	0.40
	SD	1.08	0.92	0.74	0.74
대학생	M	0.40	0.40	0.27	0.47
	SD	0.51	0.63	0.59	0.64
전체	M	1.17	1.20	0.95	0.80
평균	SD	1.25	1.12	1.13	1.07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인습 판단에 대한 심리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표5>에 제시하였다. 인습 판단에 대한 심리적 설명은 많지 않았다. 심리적 설명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F(3, 56)=3.59, p<.05$), 의도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3, 56)=4.30, p<.01$),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F(1, 56)=52.53, p<.001$), 의도와 바람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3, 56)=3.70, p<.05$)가 유의미 하였다. 연령 효과에 대한 Tukey 검증 결과, 5세와 8세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5$). 바람과 의도의 상호작용을 보면, 바람이 충족된 경우, 의도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심리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고, $t(59)=-5.04, p<.001$.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의도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심리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다, $t(59)=5.24, p<.001$ (그림 7 참조).

인습 판단에 대한 인습적 설명

인습 판단에 대한 인습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심리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0.07	0.33	0.13	0.07
	SD	0.26	0.62	0.35	0.26
6세	M	0.00	0.60	0.67	0.13
	SD	0.00	0.91	0.72	0.52
8세	M	0.20	0.87	1.40	0.27
	SD	0.78	1.13	1.06	0.59
대학생	M	0.13	1.07	0.47	0.00
	SD	0.35	0.96	0.74	0.00
전체	M	0.10	0.72	0.67	0.12
평균	SD	0.44	0.94	0.88	0.42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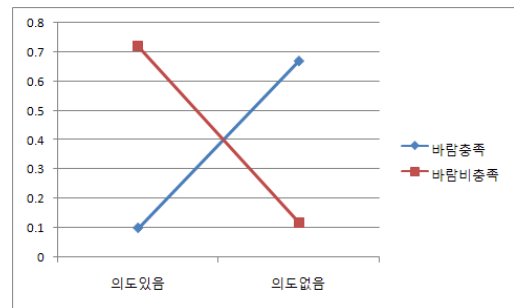


그림7. 심리적 설명에서 바람과 의도의 상호작용효과

인습적 설명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연령에 대한 주효과($F(3, 56)=4.53, p<.01$), 의도에 대한 주효과($F(1, 56)=5.95, p<.05$)와 바람에 대한 주효과($F(1, 56)=8.21, p<.01$)가 유의미 하였고,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F(1, 56)=60.77, p<.01$), 의도와 바람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3, 56)=6.81, p<.01$)가 유의미 하였다. 연령 효과에 대한 Tukey 검증 결과, 5세와 8세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p<.05$), 이러한 결과는 인습적 판단을 인습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8세 이후에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의도와 바람의 상호작용을 보면, 바람이 충족된 경우, 의도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인

표7. 인습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0.80	0.53	0.73	0.80
	SD	1.08	0.64	1.03	1.15
6세	M	1.73	0.67	1.00	1.53
	SD	1.34	0.90	1.00	1.36
8세	M	2.13	0.87	1.20	2.13
	SD	0.99	0.92	1.08	1.06
대학생	M	2.53	0.33	1.27	2.40
	SD	0.64	0.62	1.28	0.63
전체	M	1.80	0.60	1.05	1.72
평균	SD	1.21	0.79	1.10	1.22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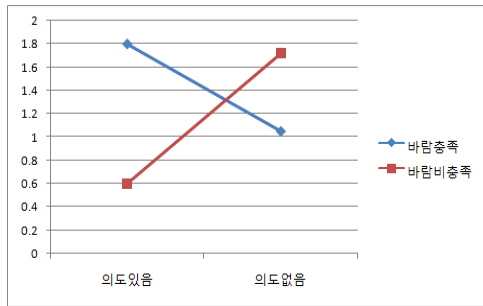


그림8. 인습적 설명에서 바람과 의도의 상호작용 효과

습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고, $t(59)=4.72, p<.001$.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의도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인습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다, $t(59)=-7.33, p<.001$ (그림8 참조).

인습 판단에 대한 결과적 설명

결과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인습 판단에 대한 결과적 설명은 많지 않았다. 결과적 설명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연령에 대한 주효과($F(3, 56)=5.52, p<.01$), 의도와

표8. 결과적 설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I+		I-	
		D+	D-	D+	D-
5세	M	1.13	0.60	1.00	0.93
	SD	1.19	0.91	1.13	1.03
6세	M	1.07	0.60	0.47	1.07
	SD	1.28	0.99	0.83	1.39
8세	M	0.40	0.07	0.07	0.27
	SD	0.83	0.26	0.26	0.46
대학생	M	0.13	0.00	0.07	0.40
	SD	0.35	0.00	0.26	0.51
전체	M	0.68	0.32	0.40	0.67
평균	SD	1.05	0.73	0.81	0.97

주) I+: 의도 있음 I-: 의도 없음

D+: 바람 충족 D-: 바람 비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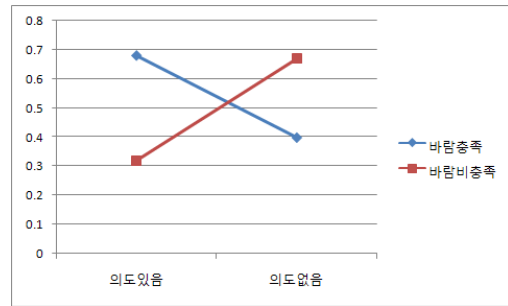


그림 8. 결과적 설명에서 바람과 의도의 상호작용효과

바람의 상호작용 효과($F(1, 56)=13.46, p<.01$)가 유의미하였다. 연령 효과에 대한 Tukey 검증 결과, 5세와 8세 사이, 5세와 성인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p<.05$), 이러한 결과는 어릴수록 결과적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도와 바람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바람이 충족된 경우 의도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결과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고, $t(59)=2.48, p<.05$,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결과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다, $t(59)=-3.39, p<.001$ (그림 8참조).

요약하면, 인습 판단에 대한 설명에서도 발달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8세 이전의 아동들에게는 결

과적 설명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인습적 설명이 증가하였다. 바람이 충족된 경우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의도의 영향은 반대로 작용하였다. 바람이 충족된 경우에는 의도가 없을 때보다 의도가 있을 때 인습적 설명이나 결과적 설명이 많았다. 반대로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인습적 설명이나 결과적 설명이 많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서 반응과 인습적 판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정서 반응과 관련하여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정서를,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의 주장을 반복 검증해 주었다(Astington & Gopnik, 1991; Lagattuta, 2005; Wellman, 1990).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바람의 충족과 사회적 규칙의 위반이라는 갈등적 상황에서 정서 반응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바람이 충족된 경우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이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 때 성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규칙의 위반 여부보다 바람의 충족 여부에 근거하여 정서 반응을 예측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 없이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정서를,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위반 행위를 판단하게 하여 발달적 변화를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들은 8세 이전의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위(예, 남의 물

건을 훔치는 것)를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경우에 긍정적 정서를 가질 것이라는 ‘행복한 위반자 현상(happy victimizer phenomenon)’을 보고하였다(Arsenio, 1988; Arsenio & Kramer, 1992; Keller, Gummerum, Wang, & Lindsey, 2004; Nunner-Winkler & Sodian, 1988). 하지만 8세 이후의 아동들에게서는 행복한 위반자 현상이 감소됨을 보고하며, 발달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왜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복한 위반자 현상’을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도덕적 위반 행동을 통해 위반자와 희생자의 정서를 추론하게 하였다. 이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이 위반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관점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위반자 현상을 보이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피해를 동반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규칙의 위반을 다루었다. 따라서 희생당하는 대상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희생자가 없고 자신의 안위만이 관여되기에 성인들조차도 바람 충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위반 행동이 아닌 금지 규칙을 주고 정서를 예측한 상황에서 발달적 변화를 보고한 Lagattuta(2005)의 결과는 이러한 설명이 적용될 수 없다. Lagattuta는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금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4-5세 아동들이 규칙을 어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에게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고, 규칙을 지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지만, 7세 이후의 아동과 성인들에게서는 이러한 반응 패턴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와의 차이는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Lagattuta의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듯하다. Lagattuta 연구에서는 정서를 두 번 예측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기분이 좋을지를 묻고, 다음에는 다른 기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연구에서 처음 물었던 정서 반응 예측을 분석했을 때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반했을 때 부정적 반응을 예측한 비율은 16%-44% 이었고, 의지력을 가지고 위반하지 않았을 때 긍정적 반응을 예측한 비율은 28%-41% 사이로 나타났다. 이 비율에 대한 연령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재분석했을 때(둘 중에 하나만 해당 정서를 보고하면 그 정서를 보고한 것으로 재분석함), 그리고 긍정과 부정적 감정이 혼합된 반응에 대한 연령 간 차이를 분석했을 때 4-5세와 7세-성인 사이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반응을 ‘기분이 좋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1점, ‘기분이 나쁘다’에 0점을 부여하였다. 이 점수들을 합한 총점을 분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총점을 분석했을 때 연령 간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를 ‘기분이 좋다’는 반응, ‘그저 그렇다’는 반응,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 각각에 대한 연령 간 차이를 검증했을 때, Lagattuta(2005)와 대응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분이 좋다’는 반응과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연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저 그렇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연령 간 차이가 나타났다, $F(3, 56) = 4.69, p < .01$. 6세보다 8세와 성인들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agattuta에서 혼합된 정서 반응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듯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바람의 충족, 규칙의 위반, 의도

의 유무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겉으로 드러난 반응 예측 패턴은 같아도 그 예측을 하게 하는 기저의 논리는 연령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서 반응에 대한 설명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정서 반응에 대해서는 주로 심리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 설명 패턴에서 연령 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5-6세 아동들은 결과만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예, 차 길에서 자전거를 타세요), 8세와 성인들은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타세요).

셋째, 바람 충족과 규칙 위반이라는 갈등적 상황에서 정서를 예측할 때 의도가 영향을 주었다. 바람이 충족된 경우, 바람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때보다 있었을 때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고,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바람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을 때보다 의도가 있었을 때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의도의 역할은 정서 반응 설명에서도 나타났다.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의도가 있을 때 심리적 설명을 더 많이 하였는데, 주인공의 의도를 언급하거나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사회적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와 사회적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이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를 다르게 추론한다면 사회적 규칙이 정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단순한 바람과 정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직접 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며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규칙에 대한 언급 없이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를 본 전

명숙과 김혜리(1999)는 5세 아동의 81%정도가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 정서를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 정서를 추론한다고 보고하였다. Lagattuta(2005)에서도 5세 아동 100% 정확하게 추론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규칙 위반함) 긍정적 정서를 예측한 비율은 5세 아동의 경우 59%이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규칙 위반하지 않음) 부정적 정서를 예측한 비율은 51% 정도였다. 이러한 대비 현상은 바람의 충족 여부가 기본적으로 정서를 결정해 주지만, 규칙이 있다는 사실도 정서 경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인습적 판단에서 의도가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인습 판단에서는 규칙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한 중요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의도를 가지고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의도도 하지 않고 위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의도의 유무가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규칙을 위반하였어도 의도가 없었을 때에는 부정적 판단이 감소하였다.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위반하지 않은 경우와 의도 없이 위반하게 된 경우의 판단은 비슷한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습 판단에서 의도가 고려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시은, 정영숙, 2000; Chandler, Greenspan, & Barenboim, 1973; Costanzo, Coi, Grumet & Farnill, 1973; Zelazo, Helwig, & Lau, 1996)를 반복 검증해 준다 하겠다. 또한 위반한 경우 의도가 있을 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Malle(2006)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부정적 행위를 평가할 때 긍정적 행위를 평가할 때보다 의도를 더 많이 고려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여섯째, 인습 판단에서도 연령 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하지만 인습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했을 때 그 설명 패턴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린 연령(5세)에서는 인습 판단을 결과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8세 이후) 인습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반응 예측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습적 판단을 할 때 어린 아동들도 의도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 예측이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규칙이 있을 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습 판단 역시 의도라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이나 인습과 관련된 추론이 마음 이론과 발달적으로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듯하다(Núñez & Harris, 1998; Wellman & Miller, 2008). 예를 들어, Wellman과 Miller(2008)는 바람-믿음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는 마음 이론과 도덕 판단이나 인습적 이해에 기초가 되는 의무 추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마음 이론과 인습이나 도덕 추론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시은, 정영숙(2000). 도덕 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49-64.
- 전명숙, 김혜리(1999). 정서추론으로 살펴본 믿음과 바람에 대한 아동의 이해. *인간발달연구* 6(1), 102-121.
- Arsenio, W. F. (1988). Children's Conceptions of

-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ers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 915-927.
-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Developing understanding of desire and intention. In A. Whiten(Ed.), *Natural theories of mind* Oxford, U.K.: Blackwell.
- Bratman, M. E. (1987). *Intentions, plans, and practical rea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penter, M., Aktar, N., & Tomasello, M. (1996). Fourteen- through 18-month-old infants differentially imitate intentional and accidental action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315-330.
- Chandler, M. J., Greenspan, S., & Barenboim, C. (1973). Judgments of intentionality in response to videotaped and verbally presented moral dilemmas: The medium is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44*, 315-320.
- Costanzo, P. R., Coie, J. D., Grumet, J. F., & Farnill, D. (1973). A Re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Intent and Consequence on Children's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44*, 154-161.
- Keller, M., Gummerum, N., Wang, X., & Lindsey, S. (2004). Understanding perspectives and emotions in contract violation: Development of deontic and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74*, 614-635.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 713-733.
- Malle, B. F. (2006). Intentionality, Morality, and Their Relationship in Human Judgment.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6*, 87-112.
- Malle, B. F., & Knobe, J. (2001). The Distinction between Desire and Intention: A Folk-Conceptual Analysis. In B. F. Malle, L. J. Moses, & D. A. Baldwin(Eds.), *Intentions and Intentionality: Foundations of Social Cogni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eltzoff, A. N. (1995). Understanding the intentions of others: Re-enactment of intended acts by 18-month-ol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838-850.
- Nelson, S. (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Núñez, M., & Harris, P. L. (1998). Psychological and deontic concepts: Separate domains or intimate connection. *Mind and Language*, *13*, 153-170.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Peterson, C. C., & Siegal, P. (2002). Mindreading and moral awareness in popular and rejected preschool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05-224.

- Schult, C. A. (2002).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73*, 1727-1747.
- Searle, J. R. (1983). *Inten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Books.
- Wellman, H. M., & Lagattuta, K. H. (2000). Developing understandings of mind.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Cohen (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2nd ed., pp. 21-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llman, H. M., & Miller, J. G. (2008). Including Deontic Reasoning as Fundamental to Theory of Mind. *Human Development, 51*, 105-135.
- Wellman, H. M., & Woolley, J. D. (1990). From simple desires to ordinary beliefs: The early development of everyday psychology. *Cognition, 35*, 245-275.
- Zelazo, P. D., Helwig, C. C., & Lau, A. (1996). Intention, Act, and Outcome in Behavioral Predic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67*, 2478-2492.
-

1차 원고 접수: 2009. 01. 09

수정 원고 접수: 2009. 02. 08

최종게재결정: 2009. 02. 09

Understanding Desire, Intention, Emotion, and Social Rules in Korean Children

Hyeonji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intentions interacted with desires to predict the emotional consequences, and lead to the conventional judgments of protagonists' behaviors. Forty five children (5-, 6-, and 8-year-olds) and 15 undergraduate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situations in which desires were satisfied with intentions or without intentions, and desires were not satisfied with intentions or without inten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attributed positive emotions to the protagonists whose desires were satisfied, and negative emotions to them whose desires were not satisfied. The emotional predictions were influenced by intentions as well. They more frequently attributed positive emotions to the protagonists who intended to fulfill their desires than the protagonists who do not have such intentions, and attributed negative emotions to the protagonists who could not satisfy their desires even though they intended to fulfill them. The conventional judgments were also influenced by intentions. The subjects more negatively evaluated the protagonists' acts that violated the rules with intentions than without intentions. They evaluated negatively the intended violation even though the protagonists did not end up with violating the rul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theory of mind and deontic reasoning.

key words: sentential complement, false belief, vocabulary, mental verb, communication verb